



미국 인쇄업체 10년간 20% 감소

인쇄의 경제학적인 평가가 아닌 인쇄업체들의 실물경제에 대한 연구발표가 이뤄지는 'Print Outlook 2002'가 변화에 근거한 생존을 모토로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해 12월에 개최됐다. 최근의 경제 동향과 인쇄업종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강조한 이 회의는 다가오는 10년, 인쇄업체들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제공했다.



Print Outlook 2002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인쇄산업의 기초가 변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CAPV(CAP Venture, Inc)의 관리이사 찰스 A. 페스코 주니어는 "인쇄산업이 제조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 때 가내 수공업적인 면을 띠었던 인쇄산업이 점차 통합된 상호교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동반자와의 협력관계를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 페스코는 지난 10년 동안 13,300개 이상의 그래픽 아트 업체들이 문을 닫아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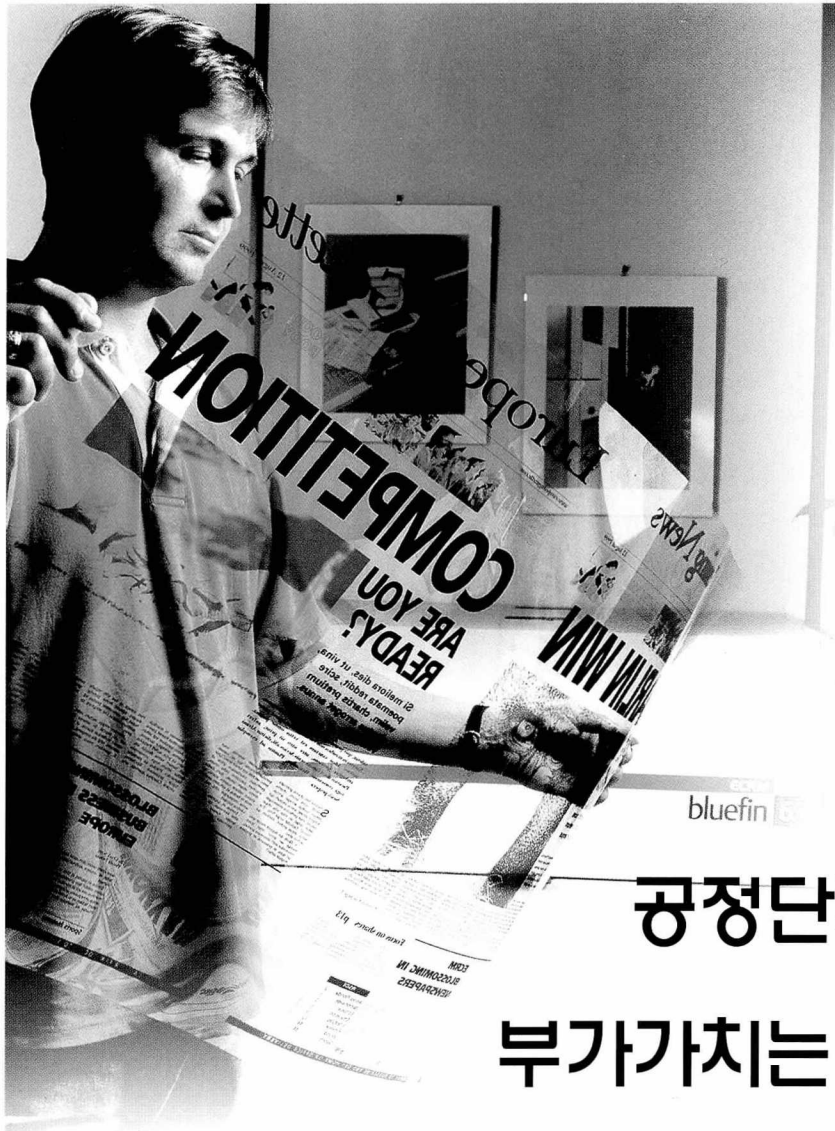
대부분은 매우 영세한 업체였으며, 1999년과 2001년 사이 12%에 달하는 21,000개 이상의 인쇄기기도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에는 광범위한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인쇄업체들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NAPL 인쇄경제연구센터의 수석 경제학자 앤드류 D 파파로찌에 의해 제창됐다.

인쇄산업의 본래기능은 고객의 상호교류 욕구를 종이나 전자 등의 매체를 활용

해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항상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 파파로찌의 인쇄에 대한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파로찌는 "2년간 연속적으로 쇠퇴한 2001년과 2002에도 첫 2분기간의 판매량은 증가했다"며 "현재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역효과는 없었던 걸로 추정되며, 2003년의 인쇄판매량도 4.7~5.2%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인쇄의 역동성 활용해야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는 사람들이 교통하고 상호교류할 때 어떠한 지원역할을 하는가에 영향을 준다. 인터넷과 전자매체들은 인쇄물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NAPL의 파파로씨는 “인쇄업체는 다가오는 몇 년 안에 대체 매체들로 상호교류를 재구성하고 발전시킬 방법을 준비할 것이다”며 인쇄는 쉽게 쇠퇴하지 않는 교역 산업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인쇄업체들은 전통적인 방법들의 변화를 위해 막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한 NAPL

공정단계 단순화 가속

부가가치는 소폭 상승추세

인터넷과 자동화 공정에 중점

회의에서 페스코는 인터넷과 인쇄업체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고객들과 상호 교류하고, 자료를 받고, 정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 한 후 “웹은 페이퍼 페이지뿐만 아니라 전자 배달, 디지털 책 인쇄, 인쇄와 배포를 수반한 비즈니스 모델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업체들은 이에 상응하는 속도로 웹 기술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향후 업체들은 디지털과 종이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CAPV의 한 간부는 “초효율적인

조직화가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내부적인 공정은 특별한 방해와 실수 없이 기능해야 하며, 협력해야 할 기술적인 지역과 유닛들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직화는 공정의 적절한 분배와 공정의 한쪽 끝에서 다른 끝을 잇는 통합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페스코는 인쇄업체들의 성공방법에 대해 “사업 공정과 내부 효율성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 초점은 공정의 비용과 시간을 없애기 위한 공정단계들의 간소화로 시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그룹에 따르면 현재 인쇄에서의 부가가치 서비스의 수익량은 전체의 12.5%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이는 4년 전의 7.2%, 2년 전의 9.1% 보다는 약간 증가한 것이다. NAPL에서 조사한 인쇄업체들은 2004년까지 부가가치 서비스 수익률을 19.2%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인쇄업체들에게 제공된 가장 인기 있는 신규 서비스는 메일링, 디자인 및 기획,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디지털 인쇄와 인터넷·웹 서비스들이다. 그러나 파파로씨는 “산업의 성장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몫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각 업체들이 어떠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는 물음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경기와 각 회사들의 광고 예산이 재반등할 때까지 더 이상의 사업 확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린트 미디어 릿츠 스쿨의 프랑코 로만도 교수는 인쇄는 특히 CTP와 같은 신기술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인쇄산업에서 최대한의 자동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CTP다"라며 "CTP는 인쇄 산업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로만도 교수는 가까운 장래에 CTP 시스템 적용 추세가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이고 이에 따라 인쇄공장과 전체 산업의 고용상태 둘 다 향후에는 지속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쇄산업 수익 창출 방안

이반스, 캐롤&연합체의 최고 경제학자 마이클 K. 이반스 박사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2003년에는 3%의 성장률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의 감세조치는 산업경기 부양에 그리 많은 도움을 주지는 않은 것 같다"며 "저금리는 자본지출이 아닌 소비향상과 부동산 경기 부흥을 도왔다"고 평가했다.

이반스에 따르면, 9·11테러 이후에 몇몇 사람들은 주식을 샀고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됐으며 2001년 하반기에 신용시장은 감소세로 반전되고 소비지출은 그 후 2분기 동안 약간 향상됐지만 모든 호황은 단기간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차기 회계년도로의 이월은 거의 없었다"며 "2003년의 소비 지출은 불경기상태로 남아있고 자본 지출 역시 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PIA의 최고 경제학자 로니 H. 다비스 박사 역시 2003년에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성장률도 3%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비스는 2003년의 임금과 급료가 종이와 기타 내구재들과 함께 3%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PIA의 자료 'Ratio'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쇄업체들의 영업부문 세전 이익률은 최근 30

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인 1%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PRINT OUTLOOK 2002'에 참가한 한 업체는 설립 4년된 디지털 프린팅 부서에서 14~22%의 영업 이익률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업계 수위 업체들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대략 8%라고 PIA는 설명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인쇄시장에서의 성공 전략에 대해 다비스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비용절감과 공정 혁신에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쇠퇴하는 판매와 이익률의 진작을 기대하지 말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뤄지는 다가오는 10년 동안 성장을 위해 사업을 구조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PRINT OUTLOOK 2002'에서 다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공정의 전자화를 피하고 비 인쇄 영역 속으로 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 미래의 산업은 업무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 그 계획의 세울 시간이다"고 거듭 역설했다.

조갑준기자 <kjcho@print.or.kr>

절세를 모르는 부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한 시대를 일구어 살던 천하의 구두쇠 김구두쇠는 돈 쓸줄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도 점심은 라면이나 국수로 때우며 살다가 부동산, 현금 및 거액의 예금통장 등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주었지만 세금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물려준 재산이 빚 좋은 개살구가 되었다.

구두쇠 아들은 안타까워할 만하다. 재산은 많이 물려받았지만 모두가 빚 좋은 개살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상속의 대상은 법적으로는 피상속인(김구두쇠)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았다. 김구두쇠의 아들이 상속받게 된 것을 상세히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상의 권리인 소유권 등 물권과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채권,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 청구권 및 주택 임차권이 상속 대상이다.

둘째, 재산상의 의무인 피상속인의 채무와 통상적인 보증채무 및 손해배상 채무, 벌금 납부 의무등도 상속대상이다.

셋째, 특정한 자만이 갖는 부양료 청구권 등의 일신상의 전속적인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넷째, 분묘에 속하는 3,000정보 이내의 임야 등 제사와 관련된 상속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만 상속된다.

여기에서 김구두쇠의 자식들이 내야 될 상속세는 김구두쇠가 남기고 간 재산 모두에다가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다.